

## 2009 특허유통페스티벌 성황리 개최

특허기술이전 컨퍼런스, 수요기업 도입기술 설명회 등 열려



**특허청**과 우리회는 지난 11월 24일부터 25일까지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센터에서 「2009 특허유통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우수 특허기술의 거래 및 활성화를 위한 이번 『2009 특허유통페스티벌』 행사는 크게 특허기술이전 컨퍼런스, 수요기업 도입기술 설명회, 이론헤망 우수특허기술 및 성공사례 전시홍보로 구성되었다.

『특허기술이전 컨퍼런스』는 특허기술이전과 실무교육 세미나로 첫째 날인 24일에는 “미래 기술동향, 기술료 평가방법, 기술이전 세무, 기술계약서 작성, 특허분쟁”에 관한 주제가, 둘째 날인 25일에는 “잠재시장 조사방법, 영업비밀 및 특허침해, 기술금융 전략, 투자유치를 위한 기업 IR, 녹색산업 성장전망”에 관한 주제 등 기술이전을 준비하는 실무자에게 도움이 되는 총 10개 주제가 발표되었다.

『수요기업 도입기술 설명회』는 기술도입을 희망하는 수요자(혹은 대리기관)가 해당 도입희망 기술을 설명하는 행사로, 전기·전자 분야 2건, 기계소재 1건, 섬유화학 10건 등 총 13개의 도입희망 수요기술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특히 이중 7건은 대기업인 LG생활건강이 직접 설명회를 가져서 해당 관련기술을 갖고 있는 이론헤망 기술공급자(개인발명가, 대학/연구소)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론헤망 우수특허기술 및 성공사례 홍보코너』는 특허청과 우리회가 우수특허로 선발한 특허기술과 특허기술이전사업화 성공사례를 소개하는 코너로 현장에서 유통상담관을 통해 기술이전 조건 등의 상담이 이루어졌다.

김기범 특허청 산업재산진흥과장은 “최근 경기회복 기조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열악한 것이 사실”이라고 진단하고 “하지만 질(質) 좋은 특허기술로 무장한 기업들은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살려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 2009년 제7회 발명장학생 선발 최종결과 발표

인하대 강훈기 학생 등 창의적 잠재력이 뛰어난 학생 100명 선발



**특** 허청과 우리회는 창의적 잠재력이 뛰어난 초·중·고·대학생 100명을 「2009년 제7회 발명장학생」으로 선발하였다.

\* 대학생 10명, 고등학생 20명, 중학생 30명, 초등학생 40명

지난 11월 5일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는 선발된 대학생, 기초생활수급자, 교사 등에 대해 장학증서 및 장학금을 수여하였고, 고등학생에게는 국내·외 체험연수(5

박(6일)를, 초·중학생에게는 창의발명캠프(2박3일)를 제공할 계획이다. 대학생에게는 각 300만 원, 초·중·고등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소정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또한, 초·중·고등 부문별 장학생 최다 배출 교사(김포초등학교 발명교실 백준균 등 4명) 및 시·도 교육청 발명교육 담당 장학사(경기도 교육청 장학사 강심원·송민영 공동수상)에게는 각 200만 원의 시상이 이루어졌다.

이번 「제7회 발명장학생 선발」에는 전국 227개교 약 400명이 참여하였으며, 경쟁률은 '08년 2.5대 1에 비해 다소 상승한 4대 1로 집계되었다. 선발된 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도 전년 1.5%에서 4%로 높아져, 경제적 소외 계층에 대한 수혜빈도도 증가하였다. 이는 올해 도입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가점 확대(5점→20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발명장학생 선발에서는 '휴대용 단말기의 한글입력방법' 등을 개발하여 기술이전에 성공한 강훈기 학생(인하대 정보통신공학과) 등 자신이 지닌 창의적 잠재력을 발휘한 우수 인재들이 발굴되었다. 최원영 학생(낙생고 3학년)은 '손잡이고리' 디자인을 개발하여 본인 명의의 '낙원아이디어'라는 기업체를 설립하고, 현대산업개발·국민은행 등에 개별 납품한 실적으로 주목받았다. 또한, 우연한 기회에 발명교실을 접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해내는 목표가 생김으로써 진취적인 학생으로 발전한 설대준 학생(인봉초 6학년) 등 발명교육으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배양하여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킨 사례도 발굴되었다.

심사위원인 천광호 교장(서울영상고등학교)에 따르면, 기존 서류심사로만 이루어진 선발에 면접심사를 도입함으로써 학생들의 실질적인 발명기여도 및 창의적 잠재성을 평가할 수 있어, 우수한 발명인재를 발굴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특허청과 우리회는 발명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향후 발명·지식재산권 분야의 핵심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병행할 예정이다.

## 2009년 대한민국 발명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시상



**특** 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과 우리회는 지난 11월 18일 한국지식재산센터 국제회의실에서 「2009년 대한민국 발명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청소년들의 창의력을 증진시키고, 전 국민에게 발명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에서 대상(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은 '평소 메모하는 습관으로 정리해온 발명노트'를 출품한 김은하(삼성여자고등학교) 학생과 '집안의 불편한 점을 찾아 개선하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출품한 김혜민, 유승빈, 최호준(태강삼육초등학교) 학생이 각각 선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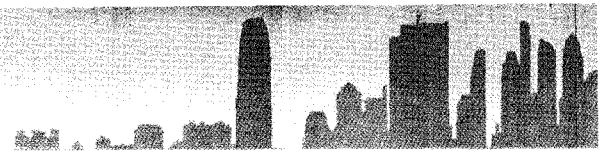
7회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에서는 초·중·고등학생과 교사들이 높은 관심을 보여 총 1,195점이 출품되었고, 1·2차의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26점의 수상작이 결정되었다.

우수지도교사에게 주어지는 특별상은 이담초등학교 박준혁 교사에게 주어졌다. 박 교사는 올해 금상 1명, 입선 2명을 지도하였고, 이러닝을 통해 꾸준히 학생들을 지도한 바 있다.

한편, 공모전 시상식과 함께 개최한 청소년발명기자단 '올해의 기자' 시상식에서는 인천 양지초등학교 류연웅 학생이 올해의 기자(특허청장상)에 선정되었다.

이번 수상작들은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이버국제특허아카데미([www.ipacademy.net](http://www.ipacademy.net))'에 연중 전시돼 지식재산권과 발명 홍보를 위한 콘텐츠로 활용될 계획이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사회 각 분야에서 발명과 지재권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했고, 앞으로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교육 자료로 적극 활용해서 발명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2009 대학발명위크숍 개최

2010년 전국대학발명동아리연합회 회장 김양곤(인하대 3년) 학생 선출



우 리회는 지난 11월 21일 대전 국제 지식재산연수원에서 「2009 대학 발명위크숍」을 개최했다.

특허청이 주최하고 우리회가 주관한 「2009 대학발명위크숍」은 1년 간 전국발명동아리연합회의 활동사항을 점검하고 그간의 활동 우수자 및 동아리를 시상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대학발명동아리 회원 및 대학생 약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김양곤(인하대 고분자공학과 3년) 학생이 2010년 차기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2009년 발명동아리연합회 회장 고영창(KAIST 4년) 학생이 1년간 발명동아리 사업에 대한 활동 보고 및 1년 간 임원 활동을 통한 공로를 인정받아 특허청장 표창을 받았다.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김양곤 학생은 “현재 전국 40여 개 대학을 4개 지부로 나눠 운영 중인데 앞으로 전국의 모든 대학에 발명동아리를 두고 많은 창의적 인재들의 발명 활동을 지원하여 대학생들의 발명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김양곤(인하대 고분자공학과 3년) 학생이 2010년 차기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2009년 발명동아리연합회 회장 고영창(KAIST 4년) 학생이 1년간 발명동아리 사업에 대한 활동 보고 및 1년 간 임원 활동을 통한 공로를 인정받아 특허청장 표창을 받았다.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김양곤 학생은 “현재 전국 40여 개 대학을 4개 지부로 나눠 운영 중인데 앞으로 전국의 모든 대학에 발명동아리를 두고 많은 창의적 인재들의 발명 활동을 지원하여 대학생들의 발명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 외 올해의 발명동아리로 영동대학교 'APOS', 금오공과대학교 '거북선신화', 충남대학교 '크리에이트'가 선정돼 특허청장상을 수상했다.

또, '08년~'09년 대학발명경진대회에서 각각 동상, 은상을 수상하고 현재 쉐라시스템 대표이사로 청년창업에 성공한 이진철(호서대 전자공학 4년) 학생과 독일국제발명품전시회 금상 수상자인 서동식(연세대 생화학과 2년) 학생이 성공사례 발표를 했다.

한편, 「2009 대학발명위크숍」은 올해 제8회째로 발명동아리 활동발표, 특허출원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발명대학생 간의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2009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 시상식 개최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상 '충남대팀', 지식경제부 장관상 '성균관대팀'

총 34개 대학 122개 팀 수상, 최다 수상 KAIST, 최다 응모 인하대

특허전략부문 69팀 28개 대학, 선행기술부문 53명 18개 대학



이 리회는 지난 11월 26일 신라호텔에서 「2009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 대회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총 상금만 2억 9천만 원이 넘는 이 대회는 36개 기업이 참여하였고, 80개 대학에서 2,720팀이 참가해 지난해보다 더욱 열띤 경쟁을 펼쳐 34개 대학에서 122팀을 선정했다.

이번 대회를 공동 주최한 특허청과 한국공학한림원은 「2009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 대회의 특허전략부문에서 충남대 팀(장진건·임동현·김용관, 이하 장진건 팀)이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상, 성균관대 팀(현해일·서호영·손경식, 이하 현해일 팀)이 지식경제부 장관상을 수상하여 최고의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또 지난 7월 선행기술부문에서 지식경제부 장관상이 결정된 김경난 씨(경희대)는 특허전략부문에서 특허청장상까지 받아 2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상을 수상한 충남대 장진건 팀은 한국조선협회가 제시한 '선박건조공법의 특허분석과 고생산·고효율 유망기술 개발'이라는 주제에 대해 특허전략을 제시했으며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동안 '확장형

부유식 도크'와 '계단형 선박건조장치' 등 총 6건의 특허를 신규 출원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지식경제부 장관상을 수상한 성균관대 현해일 팀은 "닌텐도 위(Wii)같은 간편하면서 편리한 동작 기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미래 차세대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전공분야인 모바일과 연계하는 미래 특허전략을 수립하게 되었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지도교수 상에는 충남대 이영신 교수(장진건 팀 지도,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상), 성균관대 전재욱 교수(현해일 팀 지도, 지식경제부 장관상), 경희대 오환섭 교수(김경난 팀 지도, 특허청장상), 서울대 김화용 교수(장성현 팀 지도, 특허청장상), 서울대 장정식 교수(최문정 팀 지도, 특허청장상), 영남대 이화조 교수(김상덕 팀 지도, 특허청장상) 등 6명이 수상했다.

특히 성균관대 전재욱 교수가 지도한 3팀은 최고상인 지식경제부장관상을 포함하여 특허청장상, 기업 CEO 우수상 등을 전원 수상해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경희대 오환섭 교수는 16팀을 지도해 5팀(장려상 포함)이 수상하는 성과를 올려 최다 수상자 배출 지도교수로, 영남대 이화조 교수

## KIPA 사회봉사단, 사랑의 연탄 나르기 봉사활동



우리회 'KIPA 사회봉사단'은 지난 11월 19일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위치한 서울 연탄은행을 방문, 겨울철 난방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우가구 및 독거어르신들께 전달할 연탄을 기증하고, 직접 연탄을 배달하는 봉사를 실시했다.

KIPA 사회봉사단 관계자는 "앞으로 사회봉사활동에 직원들이 참

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는 무려 22개팀을 지도해 4팀이 수상하여 최다팀 지도교수로 파악되는 등 교수들도 대회에 뜨거운 열정을 보였다.

특히 최다 수상대학에는 총 17팀(선행기술부문 4팀, 특허전략부문 13팀)이 수상한 KAIST가 차지했으며, 선행기술조사부문 249명과 특허전략수립부문 12팀 등 총 261팀이 참가한 인화대가 최다 응모대학으로 선정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는 국내외 특허를 분석해 연구개발 전략 및 특허획득방향을 제시하는 특허전략 수립부문과 가상의 출원서에 대한 선행기술을 조사해 특허 가능성을 판단하는 선행기술조사부문으로 나뉘어 치러졌다.

이번 대회에 문제를 출제한 T기업 관계자는 "실제 산업 현장에서 느꼈던 애로사항을 문제로 출제하였으며, 학생

들의 답안에서 회사가 발굴하지 못한 새로운 틈새 사업분야를 알 수 있어 향후 신사업 추진 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한편 올해 2회째 진행되면서 대회 수상자들이 특허에 강한 엔지니어로서 실제 산업계에 취업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특허전략부문에서 수상한 김요한(서울대) 씨는 '대회에 참가한 경험과 이를 통해 배운 점, 경쟁자들과의 차별성 등이 인정되어 면접관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것 같다' 고 취업합격 소감을 밝혔다.

특허청 김영민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앞으로 이 대회가 특허 엔지니어를 배출하는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도록 수상자 취업 지원에 노력을 기울이겠다' 고 말했다.

## 전국 초·중 발명글짓기·만화 대상 수상자 발표

글짓기 대상에 김선희(경기 장자초 5) 원혜인(서울 서일중 2) 학생이,  
만화 대상에 채정범(인천 담방초 4) 허수경(전남 여도중 2) 학생 각각 수상  
넘어지지 않는 꽃병, 맹인손목시계 등 이색 아이디어 넘쳐

**우** 리회가 주최하고 POSCO가 협찬한 「제33회 전국 초·중학생 발명글짓기·만화 현상모집」에서 글짓기 대상은 김선희(경기 장자초 5), 원혜인(서울 서일중 2) 학생이, 만화 대상은 채정범(인천 담방초 4), 허수경(전남 여도중 2) 학생이 각각 수상했다.

글짓기부문은 김선희 학생(초등부)의 '넘어지지 않는 꽃병' 과 원혜인 학생(중등부)의 '혼유방지 주유건' 이, 만화 부문에서는 채정범 학생(초등부)의 '안 쏟아져요! 안전 압정통' 과 허수경 학생(중등부)의 '눈이 안 보이는 맹인전용 손목시계' 가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했다.

또 단체상은 수상 및 응모건수가 많았던 목포대성초등학교와 광양제철중학교 등 총 6개 학교가 선정됐다.

올해로 33회를 맞는 전국 초·중학생 발명글짓기·만화 현상모집 행사는 초·중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를 계발하고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과 발명을 생활화하여 쉽고 재미있게 발명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전체 수상자는 글짓기 부문에서 초·중등부 각각 대상 1명, 금상 5명, 은상 10명, 동상 30명이, 만화 부문은 대상 1명, 금상 5명, 은상 10명, 동상 40명 등 총 204명이 상을 받았다.

한편 대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50만 원의 상금이 주어졌으며, 이들은 향후 발명장학생 선발에서도 가점을 받게 된다.

